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19. 5. 17(금)	
자료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제영 선임행정원(051-797-4383, blueocean@kmi.re.kr)•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경민 학예사(051-309-1857, kkm@knmm.or.kr)	
배포 부서	• 기획조정본부 홍보출판실(051-797-4381, 4383)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하는 <THE OCEAN – ONE WORLD ONE OCEAN> 사진전 개최 – 제24회 바다의날 기념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이하 KMI)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주강현)과 함께 5월 20일(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7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THE OCEAN – ONE WORLD ONE OCEAN> 사진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사진 전시는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협력사업으로 해양클러스터 내 사회적 가치 공동 창출에 기여하고, 전세계 바다의 연구와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해양 융·복합 플랫폼 디오션『THE OCEAN』매거진에 기고된 사진들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 디오션『THE OCEAN』매거진은 단기적 해양의식 제고를 탈피하고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는 해양에 대한 관점을 문화적 소프트웨어적 사고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창간된 잡지로, 해양강국의 궤적, 해운과 물류, 수산과 바다음식, 바다여행과 레저, 해양역사와 문화, 해양경관과 환경, 해양과학기술과 미래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연재하며 국내의 필자는 물론이고 해외의 필진이 함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이번 전시는 해양강국의 몇 가지 상징들, 수산과 바다음식, 바다여행과 경관 등 매거진 수록 사진과 관련 기사를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2015년부터 발간해 온 <디오션>의 대표사진과 비하인드 컷을 포함한 총 75점의 사진을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1부 어업, 그리고 바다음식, 2부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3부 해양문화 탐방의 바닷길, 4부 신북방, 신남방 바닷길

- 1부는 디오션『THE OCEAN』에 연재되고 있는 각종 수산물의 생애와 어업, 양식 등 수산물 관련 사진 소개하고 2부에서는 해양강국의 역사, 해운 항만 등 사진을 나라별 구성하여 각각의 성공과 몰락, 재기와 재생, 미래비전 등 전시한다. 또한, 3부는 오래된 해안 성곽과 종교시설, 조선소와 항구와 등대유산, 그밖에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박물관과 미술관, 아쿠아리움 등 국외의 해양 인프라 소개한다. 4부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북방루트(러시아)와 인도양 해역권역으로 가는 신남방 바닷길 남방루트(인도네시아)를 집중 조명한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은 “디오션『THE OCEAN』매거진은 2015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0회를 발행, 해양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매거진으로 자리잡았다고 생각된다. 『THE OCEAN』에 수록되었던 사진 및 주요 기사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THE OCEAN』이 한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보출판실 이제영 선임행정원(051-797-4383)이나 국립해양박물관 전시기획팀 김경민 학예연구사(051-309-18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